

[아프리카 비즈니스 정보]

# 에티오피아, IT 스타트업 기업의 사회적 문제 해결 움직임

에티오피아의 통신 시장을 국영기업인 에티오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8년 6월 부분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남아프리카공화국 통신사인 MTN이나 보다콤 등이 시장진출 의사를 표하고 있어 시장 경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 스타트업 기업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 농업 기술을 지원하는 인큐베이션 시설

민간 인큐베이션 시설 블루문은 2016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스타트업 30개사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농업에 특화된 기업으로 특히 농업 기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농업 밸류체인을 시스템으로 통합함으로써 중개업자를 줄이고 농가와 시장을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등이 입주한다. 동 시설의 코디네이터는 “농업은 GDP의 40%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창출하고 있다. 기술의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효율화가 이루어지면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전했다.

## 원조가 아닌 지속 가능한 의료 사업을 추구

에티오피아 최초의 인큐베이션 시설인 아이스 아디스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독일국제협력공사(GIZ)의 원조로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민간 운영으로 이루어진다. 입주 기업 중 한 곳은 병원용 통합업무시스템(ERP)을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설립자에 따르면 사업 확대의 과제로서 “산업계 전체적으로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는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투자자도 기술 분야에 관한 지식이 적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자금 조달 장애물이 높다고 한다. 또한 정전이 잦다는 것도 장벽이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송신 데이터를 압축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 해외에서 귀국해 창업하는 케이스도 있어

또 다른 의료기술 기업은, 미국 시애틀에서 자란 에티오피아 출신의 엔지니어가 귀국하여 2016년에 창업한 회사로 병원용 예약 관리, 전자 진료기록, 약제 관리 등의 통합 시스템을 개발했다. 창업자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 비교함으로써 아프리카의 과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병원 앞에서 환자가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것, 전자 의료기록이 병원이나 약국 간에 공유되지 않는 것, 위조 의약품 유통, 환자의 검사 데이터 착오 외에도 진료·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는 메일 서비스가 없어 빈번하게 통원이 필요하다는 것 등 쌓여 있는 과제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방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기업에 따르면 정부가 고액의 의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조 자금을 더하면 의료 시장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에 충분한 규모가 된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립 병원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제안도 진행하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을 전개하려는 분야가 현재까지 농업(농업 기술)과 건강·의료(의료기술)에 집중되는 것은 에티오피아 현지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크기는 농업 기술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경제적·사회적 과제가 많음을 뜻하고, 병원용 IT 시스템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여럿 있었던 것은 현재 에티오피아에는 비교적 고가의 IT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IT화 진행이 더딘 부문이 병원 부문 이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도 들 수 있다. IT 시스템의 도입은, 일례로 소매 체인 등도 후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디스아바바 시내를 살펴보면, 현지점에서 서비스 분야의 대형 체인의 진출은 아직까지 제한되어 있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출처

JETRO, 에티오피아의 스타트업, 농업과 의료 기술로 사회문제 해결 목표, 2018.8.17.

<https://www.jetro.go.jp/biz/areareports/2018/0c1a95ca812beadc.html>